

안녕하십니까?

한화자산운용은 아시아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자산운용사로서 장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JP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와 분할 합병을 준비해 왔으며 2018년 5월 30일 금융당국의 승인을 득하여 JP모간자산운용의 국내에 설정된 모든 펀드를 한화자산운용으로 2018년 6월 4일에 이관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는 2018년 6월 4일부터 JP모간자산운용의 펀드 관련 집합투자업 사업부문을 한화자산운용이 승계하며, 이번 분할합병을 통하여 다양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및 해외펀드 라인업이 강화되어 고객 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당 펀드들에 관련된 마케팅 및 고객 서비스 등 또한 한화자산운용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판매사에 제공될 예정이며 이관된 펀드들은 기존과 변함없이 JP모간자산운용의 계열사에 의하여 운용되는 역외펀드에 투자되거나 계열사들에게 위탁운용 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한화자산운용(주)에 대한 성원에 감사 드리며, 고객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31일

한화자산운용 대표이사 김 용 현

